



NEW SPIRIT


Inho & Yeonji Park
 Faith Academy Mindanao
 PO Box 81305
 8000 Davao City, Philippines
 ih.park@gmail.com
 agnes.yjpark@gmail.com
 digos.weebly.com

I will give you a new heart and put a new spirit in you; I will remove from you your heart of stone and give you a heart of flesh (Ezekiel 36:26)

2013년 8월

선교편지 제 57 호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 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과 사역을 위하여 항상 기도하여 주시는 교회와 성도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과 은혜가 교회와 가정에 늘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학원 사역을 감당 하면서 저희가 만나는 많은 학생 중에서, 제 아내가 특별하게 아끼는 한 여학생이 있습니다. 모든 학생들을 동일하게 사랑하고, 관심을 가져 주어야 하는데, 제 아내는 이 여학생에게 마음이 특별히 더 많이 간다고 합니다. 금년에 마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장학생으로 스파마스트 대학으로 진학한 '그레첸'이라고 하는 여학생인데, 제 아내가 많은 학생 중에 보이지 않게 소위 '편애'를 하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일찍 돌아 가시고, 아버지께서 그레첸과 오빠를 돌보아 주었는데, 아버지 마저도 아이들이 고등학교에 재학중에 돌아 가시고 말았습니다. 즐지에 고아가 되어 생활이 급격히 어려워짐에 따라, 나이 어린 오빠가 고등학교를 그만두고 생계를 책임지게 되었습니다. 동생 그레첸은 학교에 남아 공부를 계속 할 수 있었지만, 어린 두 자녀가 현재와 미래에 대한 무게를 감당하기에는 너무도 힘겨운 나날이었습니다. 그런 중에 재작년 초부터 담임 선생님의 권유로 그레첸이 저희 토요 프로그램에 어렵게 나오기 시작하였습니다. 성적도 많이 떨어지고, 학교에 다녀야 하는 이유를 점점 잃어 가는 가운데 별



대학 교정에서 (그레첸— 오른쪽에서 첫번째)

로 내키지 않는 마음으로 저희 그룹에 합류가 된 것입니다. 그 어느 위로도 그레첸의 형편을 바꾸어 줄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저희들은 마치 그레첸의 형편을 아무것도 모르는 듯이 다른 학생들과 다름없이 편하게 대하는 것으로 관계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말을 붙이기가 어려울 정도로 과묵했던 그레첸이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학교에 도착하면 학생들을 위하여 준비한 물품들을 자동차에서 교실로 옮겨야 하는데, 도움을 청하기 전에 여학생임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먼저 달려와서 무거운 짐을 옮겨 줍니다. 그리고 모든 프로그램을 마치고 뒷 정리를 할 때도 어김없이 저희들을 끝까지 도와 주는 그레첸입니다. 또한 저희 그룹에 있는 한 여학생을 디고스가 아닌 다른 지역에 있는 병원을 방문할 수 있도록 도와준 적이 있었는데, 저희와 함께 그 학생의 부모를 대신하여 먼 길을 같이 가며 오랜 시간 몸이 아픈 친구를 도와준 학생도 그레첸입니다. 어린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굵은 일을 앞서서 감당하는 모습이 결코 가벼워 보이지 않습니다. 제 아내는 이런 믿음직한 그레첸을 만 며느리감 같다고 말할 정도입니다.

그동안 학교 생활에는 비교적 소극적이었던 그레첸이, 감사하게도 작년말부터 서서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학생들과는 조금은 구별되게 30개의 성경을 노트에 계속 적어가며 암송하는 모습이 얼마나 진지한지 모릅니다. 또한 아버지가 돌아 가신 후에 학교 공부를 소홀히 했었는데, 대학교에 진학 할 수 있는 장학 프로그램에 대한 소망으로 공부를 다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선생님들 사이에서도 가파르게 올라가는 그레첸의 성적이 놀랍다고 이야기 할 정도로 열심이더니, 마침내 전교 6등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뉴욕예일교회의 장학금으로 대학교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모님이 계시지 않는 연약한 딸을 긍휼히 여기셔서, 그레첸의 유일한 기도 제목이었던 대학 진학을 마침내 이루어 주시고, 저희와 함께 주 안에서의 교제를 계속 할 수 있도록 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주린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시 107:9)

그런데 대학 입학 후에 미처 생각지 못했던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동안 생활비를 충당해 주었던 오빠가 어린 나이에 같은 또래의 여자를 만나서 새로운 살림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는 더 이상 동생의 생활비를 부담해 줄 수 없으니, 각자 독립해서 따로 살자고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난감한 지경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이면 그레첸도 공부를 포기하고 다른 살 길을 찾아 나설만 한데, 그러나 대학을 마치고 꼭 선생님이 되겠다는 생각으로, 공부하면서 생활비를 벌 수 있는 길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대학교에서 비교적 멀리 떨어진 곳이지만 일반 가정집의 가사 도우미로 취직하게 되었습니다. 학교를 다니는 조건으로 가정집에서 생활을 도와주며 아침과 저녁 식사 그리고 세탁과 청소를 하는 일입니다. 숙식을 해결할 수 있는 것 외에 매일 일당으로 60페소 (약 \$1.50)와 점심 도시락까지 준비해서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레첸으로서는 공부하면서 이보다 더 좋은 일을 찾기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렵게 벌은 일당 60페소 중에서 50페소는 학교에 다니기 위한 교통비로 사용해야만 합니다. 즉, 매일 10페소 (약 \$0.25) 정도를 생활비로 저축을 하면서 일을 하고, 공부를 하는 아주 힘겨운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매주 토요일마다 빠지지 않고 제자 훈련에 참여하기 위하여 학교로 오는 그레첸의 모습은 씩씩하기만 합니다. 그런 까닭에 제 아내는 다른 학생들보다 그레첸을 더욱 더 '편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학생들의 경제적인 어려움은 단지 그레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루이라는 학생도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시장에 나가 채소를 구입하여 가게에 운반해 주는 일을 하며 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항상 웃는 얼굴이지만, 피곤에 지친 모습이 역력합니다. 일전에 저희 그룹에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당면한 '고민'에 대하여 조사를 한 적이 있는데, 이곳 학생들이 가장 힘들어 하는 문제는 성적도, 가정도, 친구도, 이성도 아닌, 단연 '경제적인 어려움'이었습니다. 가난으로 인하여 부모들도 고생을 하지만, 이로 인한 자녀들의 고민도 결코 적지 않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나름대로 학생들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해결해 주기 위하여 학생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 보기는 하지만, 가난한 농촌 지역이기 때문에 적은 시장 규모로 인하여 수요와 공급을 맞추며 수입을 올릴 수 있는 일들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요즘들어서 학생들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하여, 주님께 지혜를 달라는 기도가 점점 더 절박해 지고 있습니다.



장학생 가정 방문

그런데 이러한 학생들의 경제적인 어려움은 단지 그레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루이라는 학생도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시장에 나가 채소를 구입하여 가게에 운반해 주는 일을 하며 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항상 웃는 얼굴이지만, 피곤에 지친 모습이 역력합니다. 일전에 저희 그룹에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당면한 '고민'에 대하여 조사를 한 적이 있는데, 이곳 학생들이 가장 힘들어 하는 문제는 성적도, 가정도, 친구도, 이성도 아닌, 단연 '경제적인 어려움'이었습니다. 가난으로 인하여 부모들도 고생을 하지만, 이로 인한 자녀들의 고민도 결코 적지 않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나름대로 학생들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해결해 주기 위하여 학생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 보기는 하지만, 가난한 농촌 지역이기 때문에 적은 시장 규모로 인하여 수요와 공급을 맞추며 수입을 올릴 수 있는 일들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요즘들어서 학생들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하여, 주님께 지혜를 달라는 기도가 점점 더 절박해 지고 있습니다.

<구직 광고>

25명의 건강하고, 밝고, 적극적인 대학생들이 공부를 하며 할 수 있는 '일'을 찾고 있습니다.
따갈로그어, 비샤야어, 영어가 가능하고, 한국말로 인사를 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 사용이 가능하고, 시간을 잘 지킵니다. 인건비는 아주 착합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마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눅 5:5)



국제 투명성 기구 (Transparency International, TI)는 매년 국가별 부패 인식 지수 (Corruption Perception Index, CPI)라는 것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10개의 국제 공인 기관이 분야별로 각 나라의 공무원과 정치인이 얼마나 부패해 있는지에 대한 정도를 비교하여 국가별로 순위를 정한 것입니다. 2012년 발표에 의하면 해마다 거의 변동이 없이 덴마크, 뉴질랜드, 핀란드가 조사 대상국 174개국에서 가장 청렴한 국가로 발표가 되고 있고, 상대적으로 미국은 19위, 한국은 4년 연속 하락하여 45위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살고 있는 필리핀은 105위이고, 아프카니스탄, 소말리아, 북한이 공동 꼴찌인 174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곳은 잘 모르겠지만, 제가 사역을 하고 있는 '마띠 교도소'에 오면 비교적 하위에 있는 필리핀의 부패 지수를 아주 구체적으로 실감할 수가 있습니다. '돈 있으면 무죄, 돈 없으면 유죄'라는 사회 불평등과 함께 만연한 부패의 모습이 고스란히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마띠 교도소의 재소자와 이야기를 해보면, 한사람 한사람의 사정과 형편이 마치 드라마와 같은 극적인 사연으로 가득합니다. 이웃집의 코코넛 나무에서 10페소 (약 \$0.25)도 되지 않은 열매를 훔쳤다는 혐의로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재판을 기다리며 수감되어 있는 재소자가 있습니다. 또 다른 재소자는 동네 물소를 훔쳐서 팔았다는 혐의로 11년간을 수감되어 있으면서 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 모두 자신들은 흠친적이 없다고 이야기 하지만, 입증할 방법이 없습니다. 비싼 수임료로 인하여 변호사도 선임할 수 없어서, 피의자와 피고인의 구분도 없이 구속되어 기약없는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곳 마띠 교도소에는 14명의 여성 재소자도 함께 수감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이곳에 만연되어 있는 마약에 연루되어 수감되어 있는데, 그중의 4명은 독특하게도 납치와 관련된 범죄로 인하여 15여년이나 수감되어 있다가 마침내 지난 연말에 만기 출소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중 3명이 출소일을 며칠 앞두고 탈옥 혐의로 좀 더 경비가 삼엄한 근방의 다른 교도소로 재수감 되었고, 나머지 한명은 출소하지 못하고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저희가 교도소를 방문할 때마다, 그들이 새로운 세상으로 나가게 되는 걱정으로 인해 어떤 마음으로 출소일을 기다리고 있는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출소일이 며칠 남지 않은 가운데 탈옥 혐의는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해명을 위한 국선 변호사를 기다리고 있는데, 7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아무런 소식이 없습니다.

이곳의 재소자들은 상상하기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재소자라면 당연히 입고 있을 법한 죄수복은 물론이고, 아무런 생필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즉, 교도소에서는 하루 세끼 식사만 공급을 하고, 그외의 모든 생활에 필요한 물품은 재소자 가족들의 면회를 통하여 조달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따라서 가족이 가까이 살고 있는 재소자는 형편이 그나마 괜찮은 편이지만, 가족들이 없거나 먼 곳에 살고 있는 재소자들은 교도소 내에서도 빈민으로 살아야만 하는 형편입니다. 교도소 관리자의 말을 빌리면 하루에 식사를 포함한 제반 비용으로 재소자 한 명에게 할당된 금액은 32페소 (약 \$0.75)라고 합니다. 이 금액으로 재소자들의 하루 세끼 식사를 조달하고 있으니,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얼마나 열악한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적은 금액도 재소자를 위하여 모두 다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소위 '윗 사람'들의 호주머니로 먼저 들어가는 금액도 만만치 않아서, 실제로 재소자들에게 사용되는 금액은 훨씬 더 적다고 합니다.

저희가 마띠 교도소를 처음 방문할 때와 비교가 될 정도로 점점 더 재소자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좁은 공간에 약 80여명이 더 늘어서, 지금은 약 250여명의 재소자들이 저마다 안타까운 사연을 간직하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띠 교도소를 방문할 때마다, 머릿 속에서 떠나지 않는 생각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왜 이곳에 저희를 보내셨는가?' 하는 가장 기본적인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교도소에 있는 재소자들의 간절한 필요를 너무도 잘 알고 있으면서도, 가까이에서도 이를 채워주지 못하는 답답함과 한계로 저희의 역할이 무엇인지 자꾸 돌아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언 발에 오줌누기', '코끼리 비스켓'과 같은 소극적인 말들이 저희들이 이곳에서 감당하는 사역의 모습처럼 보여서 힘이 빠질 때가 많습니다.

이번에도 안타깝고, 죄송하고, 미안한 마음으로 교도소를 방문했습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모든 사람들의 시선을 한 몸에 받으며 반갑게 그들에게 다가 갑니다. 이제는 거리낌이 없이 수감자들이 있는 곳으로 깊이, 가까이 들어 갈 수 있도록 문을 열어 주어서 짧은 시간이지만 손을 잡고 같이 이야기도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들의 상한 마음을 위로해 주고, 필요를 채워 줄 능력은 도저히 없지만, 잠시 동안만이라도 저희들과 같은 마음이 되어서 위로자이며, 치료자이며, 회복자이신 우리 주님을 간절히 바라보는 것이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의 전부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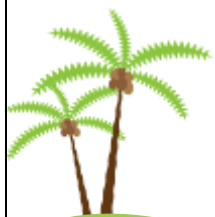


마띠 교도소에서 여자 수감자들과 함께

만군의 하나님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시 80:7)

기도 요청

1. 디고스 지역의 교회 건축을 위하여
2. 마띠 고등학교 장학 프로그램을 위하여
3. 스파마스트 대학 선교를 위하여
4. 장기 체류를 위한 비자 변경을 위하여
5. 사역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후원을 위하여



기도와 재정 후원으로 사역에 동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후원금을 보내 주실 때는 Check를 **Wycliffe Bible Translators** 앞으로 해 주시고, Check Memo에 "**for Inho & Yeonji Park (#215049)**" 라고 기입 하신 후, 아래의 주소로 보내 주시면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하는 일에 정말 큰 힘이 되겠습니다.



Wycliffe  **Wycliffe Bible Translators**
P.O. Box 628200
Orlando, FL 32862-8200